

## 학회소식

###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 교수)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 교수)는 사법정책연구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4월 12일 금요일 오후 1시 ~ 6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종길홀에서 『공법의 근본개념들』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주제와 발표자 및 공동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기조발제: 최대권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공법의 근본개념과 연구방법론
- 제1주제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민주주의’: 이국운 교수(한동대)
- 제2주제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공익’: 대법원판결례로 살펴본 ‘공익’ 개념: 이희준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제3주제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자유와 권리’: 허성욱 교수(서울대)

공동토론에는 김봉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김재광 교수(선문대), 임지봉 교수(서강대), 조소영 교수(부산대)가 참여하였다.

### 한국헌법학회(회장 문재완 교수)

한국헌법학회(회장 문재완 교수)는 지난 3월 8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정사적 의미와 오늘날의 과제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헌법학회(회장 문재완)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헌법의 과제’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3·1운동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헌법의 헌법사적 의미 3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각각 정상우 인하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김수용 대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대회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축사를 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 교수는 “3·1운동은 민족독립운동 차원을 넘어 주권재민의 실현과 민주공화국 건설을 지향하는 혁명의 성격을 지녔다.”면서 “지금부터라도 ‘3·1운동’을 ‘3·1혁명’이라 부르자.”고 주장했다. 3·1운동에 민족자결주의, 공화주의, 계몽주의 등이 담겨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봉건주의와 제국주의가 소멸되고 헌법제정권력이 탄생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 교수)와 한국비교형사소송법학회(회장 변종필 교수)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1월 18일 금요일에 동국대학교 법학관(만해관) B162호에서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 전면개정 입법안과 외국입법례 연구』라는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독일의 형사절차법 개정연혁 및 편장체계 비교연구, 영국의 형사절차법 개정연혁 및 편장체계 비교연구,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시론에 대하여 발표는 물론 토의하였다.

##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교수)와 정종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

지난 2월 20일 정종섭 국회의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교수)와 공동으로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별도로 설립된 국가수사청에서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여 공소유지 및 영장청구 등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고 치안·경비·정보 등은 종전처럼 국가경찰이 담당하게 되면 수사에 대한 공정성 담보와 더불어 정보경찰과 권력층의 유착 방지, 국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제와 토론에는 류호연 법제관, 정승환 교수, 백원기 교수, 정웅석 교수, 이성기 교수, 김종민 변호사 등이 참여하였다.

## 동 정

### 김일환 교수(성균관대학교 법전문/헌법학)

김일환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12월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6대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 12월부터 1년이다.

김일환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소방방재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비상임 헌법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